

KIA '신종엔진' 올해는 신나는 질주



신종길 발야구에 손야구까지 겸비 "대도 경쟁" 루키 윤정우 "무조건 뚫다" 대주자 1순위 낙점

KIA 타이거즈가 '신종 엔진'을 장착하고 기동력 업그레이드에 나섰다.

김일권-이순철-이종범이라는 대도 계보를 이어온 KIA는 지난해 프로야구 사상 첫 팀 3500도루를 돌파했다. 하지만 2010시즌 KIA가 성공시킨 도루는 117개로 전체 8개 구단 중 최하위였다. 2009년에도 113개의 도루를 기록하며 전체 5위에 그쳤다.

시원시원한 기동력에 목말라 하던 KIA 팬들에게 떠오르고 있는 스타가 있다. 빠른 발로 그라운드를 휩쓸며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외야수 신종길과 루키 윤정우가 그 주인공이다.

신종길은 팀에서 인정하는 기동력을 보유하고도 어설픈 수비와 타격으로 유망주에 머물던 선수였다. 그러나 지난 시즌 후반 재치있는 타격과 놀라운 기동력으로 이름을 알리며 KIA의 신데렐라가 됐다.

수비력까지 급속도로 향상된 신종길은 스프링캠프 연습경기에서도 4할 타율을 기록하며 외야 경쟁에서 한발 앞서 있다. 귀국후 연습경기에서도 홈런을 기록하는 등 공·수·주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올 시즌 KIA 타선의 기대주로 자리매김했다.

신종길은 "그 동안 많은 것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올 시즌 꾸준한 활약을 하고 싶다. 3할타율과 40도루를 목표로 해서 그라운드에서 쟁쟁"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다.

신종길은 지난해 58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쳤지만 16개의 도루를 기록하면서 이용규(25개)·김선빈(23개)·안치홍(18개)에 이어 팀내 도루 4위였다. 풀타임 활약을 전제하면 40도루는 무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광주일고 출신인 '도루왕' LG 이대형과의 질주 경쟁이 전개될 수 있을지도 팬들의 관심사다.



<신종길>



<윤정우>

이번 캠프에서 KIA는 윤정우라는 또 다른 원석 발굴에 성공했다. 광주일고를 거쳐 원광대를 졸업한 대졸 루키 윤정우는 야수 신인 가운데 유일하게 스프링캠프에 참가했다.

캠프 연습경기 13경기에 나온 윤정우는 0.318의 타율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188cm의 훅칠한 키와 긴 다리를 앞세워 9차레 베이스를 뚫는데 성공하며 눈부신 질주본능을 보여줬다. 단순 속도 비교만으로는 신종길보다 윤정우가 더 빠르다는 평가다.

KIA는 시범경기를 통해 윤정우에 대한 실전 테스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9일 SK와의 경기에서는 처음 중견수 자리에 배치되는 등 수비에 대한 평가도 받았다. 특급 주루력으로 좋은 점수를 받으며 대주자 1순위 후보로 전망은 밝다.

윤정우는 "대학 시절과 달리 투수들과의 수싸움이 복잡하다. 최대한 많이 출루하고 많이 뛰자는 생각으로 타석에 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피겨퀸 김연아 5월 잠실서 아이스쇼

'피겨 여왕' 김연아(21·고려대)가 한국 팬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을 펼친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김연아와 세계 정상급 피겨 선수들이 출연하는 'KCC스위첸 올댓스케이팅 스프링 2011'이 5월6일부터 서울 동안 송파구 잠실 실내체육관 특별 아이스링크에서 열린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아이스쇼 이후 10개월 만에 국내 무대에 서는 김연아는 이번 아이스쇼에서 한국 팬만을 위한 새 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 시작되는 201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처음 공개하는 새 쇼트프로그램 '지젤'도 함께 선보인다.

지난해 10월 피터 오피가드(미국)를 새 코치로 영입해 시즌 준비에 돌입한 김연아는 쇼트프로그램 주제곡을 발레 곡 '지젤'로 정하고 프리스케이팅에는 한국 전통음악을 편곡한 '오마주 투 코리아'를 준비해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다.

이번 아이스쇼에서는 '지젤'은 감상할 수 있지만 '오마주 투 코리아'는 선보이지 않는다. 대신 김연아는 종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올댓스포츠 관계자는 "김연아가 이번 아이스쇼에 나설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했는데, '오마주 투 코리아'는 다음에 선보이기로 했다"며 "대신 새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최경주 "샷 감각 굿, 컨디션 굿"

WGC 캐딜락 챔피언십 출격 우승 도전

'탱크' 최경주(41·SK텔레콤)는 10일 '샷 감각도 좋고, 몸 상태도 좋은 만큼 상위권 진출을 기대해볼 만 하다'며 월드골프챔피언십(WGC) 시리즈의 올해 두 번째 대회인 캐딜락 챔피언십에 임하는 소감을 전했다.

최경주는 캐딜락 챔피언십 대회장인 미국 플로리다주 도털 골프장 블루몬스터 코스(파72·7266야드)에서 9홀 연속 라운드를 마친 뒤 "올해가 이 대회에 11번째 참가할 정도로 코스에 익숙하다"면서 "그런 경험을 살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최경주는 이 대회에서 2008년 공동 12위, 2007년 공동 19위에 오르는 등 블루몬스터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 최근 끝난 액센추어 대회 이후 2주간 휴식을 취해 컨디션도 상당히 좋다.

그는 "지난 7일부터 이곳에 와서 연습하면서 코스를 점검한 결과 코스와 그린의 상태가 좋았다"리면서 "다만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바람을 얼마나 누가 잘 이용할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어 "지난 겨울에는 스윙을 정교하게 하고 쇼트게임도 중점 연습하는 등 다양하게 많은 훈련을 했다"면서 "그동안 퍼트 때문에 에를 먹었는데 최근 퍼터를 새로 바꾼 적응이 되어가고 있는 만큼 우승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경주는 이날 오전에는 스윙코치인 스티브 밴과 함께 아이언샷을 집중적으로 연습했으며, 오후에는 혼자서 9홀 연속 라운드를 돌며 마지막 컨디션을 조절했다.

최경주는 작년부터 가다듬어온 스윙이 안정 궤도에 오르며 필에 따라 PGA 대회 우승과 프레지던트컵 출전 등을 목표로 정했다. /연합뉴스

"퍼팅때 잔디 결 파악 편해졌다"

안경 벗은 신지애, 곧 시즌 첫승 사냥 예고

"차분하게 첫 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결 짧아진 헤어스타일로 바꾸고 트레이드 마크였던 안경을 벗어 던진 신지애(23·미래에셋)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년 차를 맞아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또 연세대 체육교육학과 4학년인 신지애는 "그동안 배운 게 너무 없어 이대로 졸업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 휴학을 했다. 나중에 배움의 시간을 더 갖고 싶다"며 학업에 대한 강한 의욕도 내비쳤다.

신지애는 10일 인천 송도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서 FnC코오롱의 골프 브랜드인 '잭 니클라우스'와 의류 계약 조인식을 했다. 신지애는 조인식에 앞선 회견에서 "기분 없고 후회하지 않는 경기를 하는 게 목표"라며 "첫 두 경기에서 우승하지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첫 승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라식 수술을 받은 신지애는 "퍼팅을 할 때 잔디결 파악이 편해졌다"고 했다. 그동안 안경을 끼고 있을 때 겪었던 심한 눈부심을 선글라스로 줄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의 가장 큰 차이는 코치와 드라이버샷을 바꾼 것"이라며 코치를 바꾼 것은 더 발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초반 성적이 나지 않아 주변에서 걱정도 해주고 있지만 스윙이나 마음가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지애는 스윙코치를 교체하면서 페이드샷에서 드로샷으로 바꾼 것에 대해선 "드로샷으로 바꾸면서 비거리가 확실히 늘었다"며 "주변에서 드라이버샷 거리가 20야드 정도 늘었다고 얘기한다. 청야니(대만)하고도 10야드 정도밖에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몬스터를 잡아라"

원도출신 PGA 골퍼 최경주가 9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도털 골프장 블루몬스터 코스 4번 그린에서 칩샷을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3년만의 3월 19일까지

대세일 30%

1. 세일후 절대 세일가격으로 판매치 않습니다.
2. 160만원 상당 이태리 친환경 라텍스 무상증정 (300만원 이상 침대에 한함 180×200×25cm 대형사이즈)

희정동 아울렛과 본점상품은 겹치지 않습니다.

클래식 소파 식탁 침대

ITALY

앤틱 식탁·좌탁 침대

ITALY

카우치 & 소파

ITALY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홍스페이스 아울렛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역사거리 (메디피아 신축병원 옆 400평) | 본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정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주)홍스페이스는 100% 이태리 친환경 앤틱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 ⇨ 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062-226-7567

SPACE **홍스페이스** SINCE 1990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